

# 만법 들이고 내도 걸림이 없는 도리

## 19면에서 계속

이 아니요, 그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며, 그 생명과 내 생명이 둘이 아닌 까닭에 어디에 있건 하나됨은 끊어짐이 없는 것입니다. 믿어도 바로 알고 믿고, 생각을 해도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행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깥으로만 찾고 남을 원망하고 자기를 못 믿고 남의 탓으로만 돌린다면 어찌 올 바른 종교인이라 하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항상 자기를 다스려 나가면서 어떠한 괴로움이 닥친다해도, 설사 상대로 인해서 망했다할지라도 '만약 내가 없다면, 이런 일도 없고 상대도 없지 않음'을 생각하고, 자기 주체인 한마음 주인공에 맡겨놓고 부드럽게 말해 주고 부드럽게 행동해 준다면 오래 지 않아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싸울할 것 없음을 잊으십시오.

현재 모습을 가지고 나온 자기가, 모습 없는 진짜 자기를 믿는 겁니다. 그게 에너지입니다. 자기 모습 아닌 자기, 진짜 자기를 부처라고 합니다. 이 뜻을 아시겠습니까?

### 깨달음의 최열 사라졌어요

**문** 두어달 전, 관음전에 기도를 하러 갔었는데, 도무지 답답하고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문득, '관음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은 관음의 행원력에 기대는 것이고, 그런 보살들의 원력은 곧 이 마음의 능력이다. 그러나 관음불상 앞에서 기도하느라 내 마음에 얽혀 기도하느라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참 마음이 날아갈 듯이 기쁘고 가벼우면서 어떤 역경, 괴로움도 두렵지 않다는 마음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역경, 괴로움도 두렵지 않다는 마음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역경, 괴로움도 두렵지 않다는 마음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역경, 괴로움도 두렵지 않다는 마음이 절로 들었습니다.

서 아주 자동적으로 그렇게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가면서도 여러분은 그거를 내내 좋은 게 있으면 좋다고 붙들고, 언짢으면 언짢다고 지켜 서서 붙들기 때문에 그게 놔지지를 않고 한발짝도 떼지를 못하는 겁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언짢아도 한 찰나 좋아도 한 찰나인 것을, 그거를 좋다고 붙들고 즐겁다고 야단이고 그게 행복이라고 하고 또 언짢으면 언짢다고 울고 가슴 아파하고 그냥 그걸 붙들고 늘어지고 그런다면 어떻게 자유스러운 발자국을 떼어 놓겠습니까?

우리가 24시간 살아나가는 것도 항상 바닷처럼 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정됨이 하나도 없어서, 고정됨이 없기 때문에 한다 안 한다 말이 없다고 반야심경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듣는 거나 보는 거나 말하는 거나 책을 보는 거나 일하는 거나 모두가, 만나는 거나 모두가 고정되지 붙잡아 놓은 것이 아니라 항상 바람과 같이 날아가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집착을 해서 그거를 좋으면 좋다고 붙들고 있고 언짢으면 언짢다고 붙들고 있게 돼 있는데, 그걸 언짢으면 어쩌나 하고 또 좋으면 '아이구, 좋다' 하고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그르든 그냥 가버리는 게 바로 이 마음공부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아시고 순간 좋았던 감정, 그렇지 않은 양면을 다 놓고 자유스럽게 뚝뚝뚝 길을 걸으세요.

### 불교는 이혼을 어떻게 보나

**문** 저는 처음에 교회를 통해 좋은 감정으로 제 아내를 만나, 연애 후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습니다. 허나, 저는 불교에 눈을 뜨게 되었고, 종교의 이질과 대립이 표면화되기 시작하여 제 마음이 항상 불편합니다. 제 아내를 절대 불교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부모님 제사는 후일 지내지 않을 것이라고 하니 제 마음은 더욱 답답하기만 합니다. 최근에 저의 부모님도 후일에 저희들과 같이 지내시는 것을 꺼려하시는 것 같아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부부는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어쩌야 할지... 그래서 아직 아이도 가질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저 제 과보의 업이라고 받아들이며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앞으로 각자의 행복을 위해 갈라서도 되는 것이지요. 저희들은 서로의 신앙생활에 방해받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교에서는 이혼에 대해 어떤 의견이 있는지 꼭 듣고 싶습니다. 무지에서 허덕이는 이 중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답** 어떤 보살님이 있는데 남편이 다른 부인을 또 두고 산다고 하면



그림 · 최주현

## 크면 큰대로 작으면 작은대로 동글게 대해주면 화목해져요

서 자식들도 있는데 이혼한다고 울고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을 싫어하니 순순히 놔주는 것도 좋지 않아요. 자식들을 또 희생시킬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침착하게 근본에다 관하고 그저 '당신만이 그렇게 알게 해 줄 수 있다.' 하고 그거다 말하고 부드럽게 말해주고 부드럽게 행동해 주고 그랬습니다. 일 부러라도 더더욱 그렇게 해 주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딸 노릇도 하고 동생 노릇도 하고 어머니 노릇도 하고 아내 노릇도 하고 할머니 노릇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또 남편은 남편대로 때로는 아버지가 돼 주고 할아버지가 돼 주고 오빠가 돼 주고 남편이 돼 주고 동생도 돼 줄 수 있는 그런 남편이래야 삶의 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요만한 거 가지고도 시비를 하고 요만한 거 가지고도 싸우고 요만한 거 가지고도 웅어리거 하고, 요만한

거 가지고도 운동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니, 세상을 움켜쥐겠다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한가정 한도량도 화합을 못 시켜서 이혼을 하느라 죽어나 살리니 그렇게 해야 어디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상대방에서 그렇게 하게 하니까 어쩔 수가 없다고 하시겠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거든요. 그것이 바로 놓지 못하는 까닭에 그런 일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상대가 있는 거지, 내가 나오지 않았더라면 상대가 없을 것 아닙니까. 세상이 뭐고 아무 것도 벌어지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잘못든 못했든 내 탓이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내가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상대가 있다는 것,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해보십시오.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남편이나 자식이나 나가서 어떤 불편한 일을 하더라도 부드럽게 말해주고 부드럽게 행동해 주라고 하는데, 그것은 누구나 다 따랐던 데로 고이게 마련이고 시원한 데로 고이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기 잦대로만 재고 자기 생각으로 재서 말을 하려고 하니 씨가 먹혀들지를 않는 거예요. 크면 큰 대로 대해 주고 작으면 작은 대로 대해주면 그대로 통그러지죠. 너 나가 따로 없이 말입니다. 그러면 화목해지고 가정에 이혼을 적어지고 또 자식하고 떨어져 일도 없고, 가정이 화목해지면 사회가 화목해지고, 사회가 화목해지면 나라가 화목해지고, 이 세상 모두가 그런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너무 많아서 마음없는 게 마음이며, 부처가 너무 많아서 부처라고 할 것이 없는 것이 부처다 이겁니다.

사람 사람이 한 철 끼리끼리 만나서 사는데 네 탓 내 탓하고 미워하고 이해하고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요 다음에 또 그런 결과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러셨죠. 사람이 모두 인과응보라는 자체를 모르다면 사람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요. 사람이 살아나가는 데는 우연도 없고 팔자운명도 없죠. 결국 자기가 벌여놓은 일은 자기가 거두는 거죠.

### 주먹이 저절로 쥐어져...

**문** 마음 공부의 근본은 자기 자성을 발견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있다면 증명해봐!' 라고 자극하게 관하고 하십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법당에서 '내가 있다면 주먹을 쥐어봐!' 했더니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주인공이 정말 정말 있는가보다' 하면서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는데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증명이 되면 내 몸 속에 인연이 됐던 모든 업식들이 다 녹았다는 증거인가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증명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그것은 순간 부와 자가 합쳐져서 싸이 나뉘는 뿐이지 자란 게 아닙니다. 자라려면 그만큼 수행이 뒤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의 내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푸른 하늘을 덮고 있던 무명의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조금 비쳐서 하늘이 보인 것 뿐이라는 얘깁니다. 볼 아닌 도리를 알기 위해서 숨을 녹여야 하기 때문에 또 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알기만 하면 또 뭘 합니까? 그것도 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남이 목마를 때 떠줄 수 있고 내가 먹을 수 있어야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자체가 토굴 안에서 공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법공양페이지는 동침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여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불자정보

..... 불자정보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입니다.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구직, 불교관련상품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불자정보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02)737-0697  
 \* 현재불교 전국 지사·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4cm (1회 4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사찰 토굴 부지안내

세로 5cm × 가로 5cm (1회 5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포교당 안내

- 위치: 대전시 동구 홍도동 72-27
- 법당: 30평 삼존불탱화 신중탱화등 모든 시설이 되었음
- 전세: 2500만원
- 시설비: 1000만원

042)627-5925  
011)742-5925

### 사찰(터) 안내

- 위치: 강원도 인제
- 대지: 142평, 면적 3500평
- 가격: 평당 17,000원

---

- 위치: 경기 연천
- 면적: 918평
- 가격: 평당 7만원

031)834-4324  
016)768-4324

### 사찰(터) 안내

- 위치: 충북 괴산군
- 부지: 임야 9,500평 대지 300평
- 건물: 조립식·방사로·훈집
- 가액: 1억 (답사 후 절충가능)

\* 새로 설립할 사찰부지로 최적이며 특별공영가로 모시겠습니다

011)9077-0687

### 암자 안내

용도 변경 가능 (별장)  
- 흐르는 계곡 물이 최고 좋음

• 가액: 답사후 절충

031)582-0635

### 사찰 안내

- 위치: 전북 군산시 월명동산 19-17
- 대지: 300평
- 건물: 법당, 기와, 요사채, 미륵 3존불 58년된 사찰
- 특징: 월명공원 부지 내에 위치
- 가액: 5천만원 (가격 절충)

전북 군산 미륵사  
011)9646-3220

### 포교원 운영하실 분

- 위치: 서울 중랑구 신내동
- 평수: 40평, 4층건물 4층 방2 주방1 (주차장)
- 가액: 보증금 1,500만원(월70만원)
- 시설비: 3,000만원(법당시설 완벽함)
- 특징: 주변대단지 APT.단지 및 주택지역 도심교에 적합한

02)436-3647

### 토담집 개조 암자로 토굴·기도터 최적지

- 군위 우보 10에서 10분거리
- 대지 169평 토담집 3채
- 영도가 3,500만원
- \* 1년 시시면 반드시 팔려다
- 마당 넓고 뒷산 명당지
- \* 전세, 5년 분납도 가능
- \* 처음 사찰 운영할 분도 가능

시찰, 참관 지도 불사, 편의 제공 사찰정보: 053)982-6778 (해) 011-813-3679

### 토굴터 안내

잡말한 산세, 토굴마당까지 도로 완비, 전용허가 취득(취항완료), 평도 작업 완료, 전망 좋은 최고의 토굴터 347평, 평당 3만원

경남 함양

절터 5000평, 평당 2만원, 도로 완비

055)963-3068  
017)301-1970

### 사찰터 안내

- 위치: 경남 거창군 신원면 (거창에서 약25분거리) 임야 2만평
- 차량 진입 (포장도로)
- 풍수 최적 명당 사찰터
- 가액: 7천만원 (가격절충)

전북 무주군 무풍면 (무주 구천동에서 5분거리)  
임야 1천평 (5천만원)  
017)542-7010

### 대사찰지 사찰양도(전세)

법당 5존 불상 석굴암 7척석불 굴안 50m 50평 5층탑 건물보살 이미지로 산악각 요사채 34평 사찰부지 1,200평 영도가 2억 5천 미륵불지 조성완료 도로포함 500평 법당 요사채 조성 가능지 50평 포함 1억 별도인 직접 스님 보살 30%감 전세본은 2-3년 후 사찰 매입가능한 분 영인 창건주 노령으로 직접 대사찰 조성할 분 영인, 사찰 빌(전지) 2500평 임야부지 만평

충주 043)848-1766 / 019)848-1766

### 사찰 안내

- 위치: 부산 동대신동
- 대지: 200평, 절 신축
- 법당, 산신당, 요사채 고급
- 특징: 교통편리(버스 정류소 80m) 고목, 대나무 울창
- 가액: 5억 (전세 1억 5천)

016)651-1800  
011)870-1463

### 전원주택 양도

- 위치: 경남 의령군 통수면 천계리
- 평수: 140평 (대지)
- 건물: 기옥 2채(정남향, 기옥면적 2m) 각각 행랑, 방, 주방(임시주방), 수세식화장실(욕조있음)
- 특징: 신일에 위치(산세수려), 포장도로, 텃밭있음
- 가액: 8천만원(월출가능)가옥2채

055)573-9883

### 사찰 안내

- 위치: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 내리 계곡 태백산 소백산 경계선 관광지 임야
- 평수: 62만 도랑에 부지 1800평 현재 현담 현물 조성중이며 기와 단층 40평 창고 등등
- 특징: 산세와 계곡공경이 아주 좋으며 좌우 백호가 뚜렷하고 풍향이 일출 풍고 있는 형국, 대사할 부지임
- 가액: 2억 5천

018)533-7780